

주말 쇼핑

'굿 초이스코너'·'핫 코너' 아시나요

불황 그늘 점차 걷히나

광주·전남 고용·자금사정 개선... 소비 회복세 수출은 타이어·철강·석유제품 부진에 '빨간불'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점차 헤어나고 있다. 제조업과 고용은 악화세가 둔화됐고, 소비 역시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건설활동과 기업 자금사정은 개선 분위기가 여실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수출은 타이어와 철강, 석유제품이 부진에 빠지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1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광주·전남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4월중 지역 경제는 일부 업종에서 생산과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심리지표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기 하락세가 다소 둔화했으나, 수출은 5월 들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전기장비, 석

유정제, 화학제품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나머지 업종의 부진세가 둔화되면서 감소폭이 한자리수(-9.3%)로 줄어들었다. 전월 대비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다.

4월중 소비는 경기하락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의 기대 심리가 개선돼 감소폭은 축소됐다. 광주의 대형마트는 3월 1.6%에서 4월 3.7%, 전남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은 3월 -6.6%에서 4월 -1.1%로 전월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5월중 승용차 신규등록대수는 노후차 교체용 신차에 대한 감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3월 -9.9%, 4월 -26.3%이던 것이 5월 47.0%로 급반전됐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로, 지난해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100)

를 넘어섰다.

4월중 건설 활동은 건축착공 면적, 건설업 취업자수, 레미콘 출하량이 증가하는 등 일부 개선 조짐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양도세 면제 등 정부 대책과 건설사들의 합인판매 노력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1천437호 해소됐다.

고용사정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전월보다 축소되고, 고용률도 상승하는 등 악화 추세가 누그러지는 양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은 석유화학, 석유제품, 선박 등 주요 업종의 부진으로 5월들어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주는 가전 등의 감소폭이 확대된 반면 자동차 등은 감소세가 축소됐다.

전남은 석유제품 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0%나 감소하는 등 석유류 제품의 하락세 탓에 전반적으로는 47.2%의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백화점은 비싸다고? 싸게 파는 곳도 있다

백화점이라고 비싼 제품만 파는 게 아니다. 세일기간이 아니라도 백화점 매장을 잘 살펴보면 제 값을 다 안주고도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다. 지역 백화점들이 정상 가격보다 최대 80% 싸게 파는 별도 매장이나 코너를 운영,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8일 오후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여성 고객이 집화매장의 '핫코너'에서 기획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별도 매장·시간대별 운영... 정상 가격보다 최대 80% 할인 판매 큰 호응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이월상품이나 기획상품을 할인판매하는 '굿 초이스 코너'를 마련했다.

'굿 초이스 코너'는 엘리베이터 주변이나 연결 통로 등에 마련해 놓은 간이 판매대로 지난 시즌에 정상 판매됐던 제품이 50~60%, 이월상품은 최대 8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굿 초이스 코너'는 매장과 각층에서 시간대별로 운영되고 있다. 코너가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은 오후 2~6시 사이로 이 시간대에

백화점을 방문하면 원하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식품매장에서도 저녁 7시부터 '굿 초이스 코너'를 열어 30~50% 가량 할인된 가격에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에스컬레이터 주변과 고객이 잘 지나다니는 공간에 임시 행사장 개념인 '핫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핫 코너'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30% 이상 싼 신상품을 판매하거나

인기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코너를 열고 고객들이 싫증 나지 않도록 판매 상품도 수시로 바꾸면서 예상 밖에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핫코너' 한 곳에서 2시간 동안 올리는 매출은 평균 60만원. 롯데백화점은 '핫코너'가 예상외로 호응을 얻자 6월 들어 코너 수도 늘리고 물량확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식품매장에도 '핫 코너'를 운영,

저녁 7시부터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 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22~25일까지 8층 대행사장에서 '9천900원 균일가전'을 진행한다. 캐주얼 의류부터 등산용 기능성 티셔츠, 기능성 속옷, 등산양말, 세제통, 배개커버 등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싸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간이 판매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할아버지·할머니 운전자 늘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60대 이상 비율 급증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100세가 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눈에 띈다.

1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주 피보험자) 중 60대 이상 비율이 지난 3월말 기준 8.8%(101만9천대)로 1년만에 0.6% 포인트(11만2천대) 상승했다.

70대 이상 운전자 비율도 전체 개인 운전자 중 1.5%로 전년에 비해 0.2% 포인트 높아졌다. 전반적으로 운전자들의 연령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서 40대 중반 이상인 운전자 비율은 44.6%로 1.8%포인트 상승했지만 만 45세 미만에서는 모두 하락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최고령 가입자가 99세였지만 올해 3월에는 100세 이상이 3명이었고 90대도 같은 기간 95명에서 113명으로 늘었다. 70대 이상은 4만3천574명에서 5만141명으로 15% 증가한 반면 70세 미만 가입자는 4% 감소했다.

현대해상에도 90세 이상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작년 3월 127명에서 올

해 3월에는 152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주요경제활동 연령대인 26~59세에 비해 13%가 높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우일렉 세탁기 '바람업 2' 출시

대우일렉은 세탁물 건조가 가능한 '바람업 2' 세탁기(모델명 DWF-157 GT·사진)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세탁기로는 국내 최초로 세탁물 건조가 가능한 '바

람 건조' 기능이 있으며 운동화 세탁 기능, 드럼세탁기와 같은 대형 원형 도어 및 개별 버튼이 적용됐다.

세탁기 상단 기를기울기 기존제품 대비 15도 정도 높여 세탁물을 보

다 손쉽게 넣고 뺄 수 있게 했으며, 투명 도어 부분을 기존제품 대비 10% 확대해 세탁 과정을 손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바람업 2' 세탁기는 일반형 12kg 모델과 스페셜 에디션 15kg 모델이 있으며 가격은 각각 39만8천원, 59만8천원이다.

/연합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82) 227-9940

광주광역시 서구 서문동 1-1

충무점 (082) 227-9970

순천점 (081) 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대성동 1-1

목포점 (061) 262-9200

전라남도 목포시 대동동 1-1

익산점 (063) 851-2422

전라북도 익산시 대동동 1-1

무등산 전지산악

코베아 오토캠핑

전통목 20% 할인행사

7~18일까지

0431-1187